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78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강탈해 바치는 도덕적 탕아로 취급된 사람들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평하며 비난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가 왜 부당한지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심으로써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한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아들은 깊은 실패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은 그 아들을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로 끌어올린다. 우리는 모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실패한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말아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을 담아내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선물을 낭비했던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안에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령을 주시나니』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99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파송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파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생명은 항상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 사실 성령의 은사들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요약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가지 길』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15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준비시키신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에게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버리지 못한 것이다. 다 버린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진짜 버린 것이 아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속에 들어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십자가 사명의 길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큰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은혜가 큰 영광이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훈련시키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한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1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가운데 각기 다른 두 모습의 자매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던 중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만 분주한 가운데 일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직역하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라고 할 수 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섬김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행하여야 한다.

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봉사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그 삶은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우리 인생 속에는 할 일이 너무도 많아 걱정과 염려와 근심할 일이 참으로 많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염려와 근심들은 주님께 맡기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영을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 신앙의 오솔길

만아들도 잃어버리다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노한다. 이제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다.

그는 아버지가 배운 여쭙면 가장 큰 잔치이자 공격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문밖에 남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공공연히 불신임의 표를 던진다. 아버지가 만아들과 말하려고 부득이 자리를 뜬 것은 대연의 주최자로서 체신이 깎이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그는 한사코 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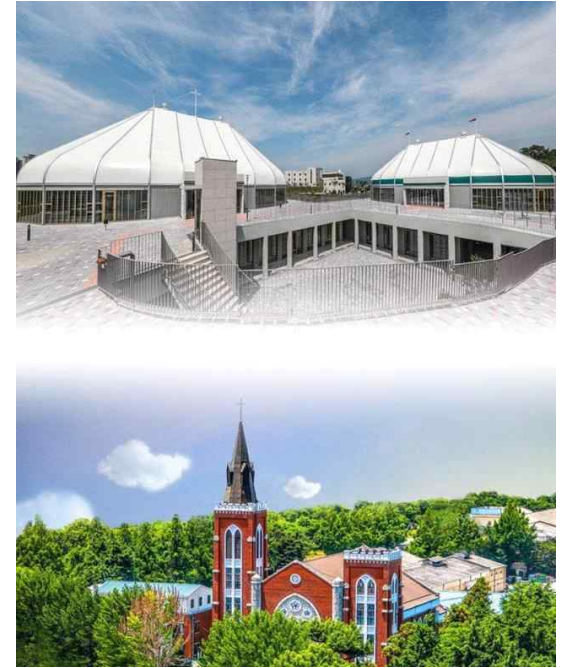
만아들이 이토록 격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특히 이 모든 일에 뒤따른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듯 형은 핏길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한다.

마침내 우리는 대단원에 이른다. 만아들의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그 시대 남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이번에도 놀랍도록 자애롭다. “아들아”라고 그는 말문을 연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면,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네 몫이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예상을 뛰어넘는 인자한 호소가 심금을 울린다.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잔뜩 빠져들어 있다. ‘이 집안은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칠 것인가?’ ‘두 형제가 화해할 것인가?’ ‘이 너그러운 제의에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아버지와도 화해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모든 생각이 스쳐 갈 그때 이야기가 끝나 버린다!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결과를 들려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다. 그 메시지만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정의하신다. 죄, 잃어버린 바 된 상태, 구원의 바른 의미를 알려 주신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中』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